



김국찬(동일농장)
(064)32-4462

제주의 명물 꽃댕강나무

상록활엽으로 독특한 향기와 내한성도 강해 제주 땡강나무는 학명 아베리야 그렌디 후로라로써 한국 재래종을 미국에서 개량하여 꽃댕강이 된 것이다.

남부지방은 물론 서울 근교까지 분포되어 있는 상록활엽수이다.

7월과 10월 두 차례 개화하여 독특한 향기와 빠른 성장속도, 강한 내한성 내공해성 철쭉, 사철나무, 팽팡나무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, 단일 품종으로도 군식, 정식, 복식경, 개식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나무이다.

현재 재배되고 있는 꽃댕강은 대부분 1~2년생으로 수폭이 40cm급의 중품은 생산량이 부족한데 신설 골프장, 도로변 조경공사 등에서 대량주문이 쇄도하고 있다. 앞으로 제주꽃댕강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이는데 년 30cm 이상의 성장 속도라면 23년내에 상품(上品)의 수목을 생산할 수 있어 고부가 가치의 품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

■ 제주시 사리봉로터리 주변의 꽃댕강나무



■ 중문관광단지내 식물원 주변